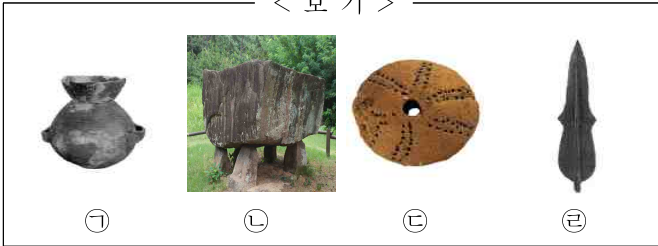


한 국 사

- 문 1.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의 세력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진(秦)이 천하를 병합하고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을 때, 이 나라에서는 ‘부’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중략)…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즉위하였다. - 위략 -

< 보 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 문 2.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내신 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 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 병관 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나) 영락 6년 병신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굴에 이르러 남으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잔은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맞아 싸우는 지라.
(다)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라) 왕이 즉위한 갑신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을유에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이다.

- ① (가)-(다)-(나)-(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라)-(나) ④ (다)-(가)-(나)-(라)

- 문 3. 다음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제의 내법좌평은 형옥업무를 관장하였다.
② 방령과 군장, 도사는 백제의 지방관 명칭이다.
③ 태봉의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집행하였다.
④ 신라의 사정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문 4. 다음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 태자 이공(理恭)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말을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자 태자가 아뢰기를,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면 아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의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을 용연(龍淵)으로 불렀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 삼국유사 -

< 보 기 >

- ㉠ 독서삼품과 설치 ㉡ 예작부 설치
㉢ 9서당 10정 정비 ㉣ 백관잠 제정

- ① ㉠, ㉡ ② ㉡, ㉢ ③ ㉢, ㉣ ④ ㉠, ㉣

- 문 5. 다음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하루는 여러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을 지어 이로움을 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왕후(王煦)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세상을 벗어날 뜻이 있으니 오직 임금께서 명하실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자 드디어 스승을 좇아 출가(出家)하여 영통사(靈通寺)에 살았다. 왕후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배움을 좋아하여, 먼저 『화엄경(華嚴經)』을 업으로 삼고 곧 오교(五教)에 통달하게 되었다. 또한 유학(儒學)도 섭렵하여 정통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우세승통(祐世僧統)이라고 불렀다. - 고려사 -

< 보 기 >

- ㉠ 교관검수와 성상검학을 주장하였다.
㉡ 법안종을 수입하여 홍왕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의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서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자못 이를 자부하였고, 또 옛 도참에 왕씨가 다하고 다시 십팔자(十八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十八子’는 곧 ‘이(李)’이다. 이로써 마음속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명사(名士)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가) 등과 연결하니, 그들도 역시 거만(鉅萬)을 보냈다.

- 고려사 -

- ①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소(所)민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
- ③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세력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 ④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문 7. 다음은 고려시대 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할아버지는 태조 왕건, 할머니는 경순왕의 큰 아버지 김억림의 딸이다.
- 아버지는 안종이고, 어머니는 경종의 비인 현정왕후이다.
-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다.
- 4도호부·8목·56지주군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

< 보 기 >

- ㉠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 ㉡ 국자감에 7재를 설치하였다.
- ㉢ 7대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 ㉣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8. 다음 글에 서술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는?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남만주의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① 이동휘 ② 이회영
- ③ 이상설 ④ 박용만

문 9.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 한 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보 기 >

-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하였다.
- ㉢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하였다.
- ㉣ 도방을 부활하여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0. 다음 서문이 실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그 곳에 있는 「동명왕 본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거듭 읽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성함이며, 귀(鬼)가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 ①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②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 ③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하였다.
- ④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문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역법서를 편찬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
-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일출입(日出入) 시각과 주야(晝夜) 시각을 계산
- 조선의 자주적 역법체계를 확립한 역법서로 평가됨

- ① 서운관(書雲觀)의 이름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고 관원들의 명칭과 인원을 조정했다.
- ② 문신들에게 당(唐)의 선명력(宣明曆)과 원(元)의 수시력(授時曆) 등의 차이점을 교정하게 하였다.
- ③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를 비롯한 6종의 통궤(通軌)를 교정·편찬하였다.
- ④ 『회회력법(回回曆法)』을 대조·검토하여 중국 역관(曆官)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 12. (가), (나)와 직접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칼과 방울을 의(義)와 경(敬)의 상징으로 차고 다녔다.
(나) 이언적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켜 주리철학을 정립하였다.

- ① (가) -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이를 중시하였다.
② (가) - 문하에서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③ (나) -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나) -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문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은/는 성종 때에 편찬한 관찬사서로서 삼국균적(三國均敵)을 내세워 삼국을 대등한 국가로 해석하여 고려시대의 고구려 계승주의와 신라 계승주의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개국 후 권력 갈등을 일으켜 온 국왕과 훈구, 사림의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 보 기 > —

- ㉠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자치통감강목』의 범례를 규범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점필재이다.
○ 성종 때에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 문하에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 < 보 기 > —

-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기군 창설 ㉠ 제물포 조약 ㉡ 조리수호 통상조약 ㉢ 조불수호 통상조약 ㉣ 박영효 건백서

- ① ㉠ - 기기창 설치 ② ㉡ - 한성순보 창간
③ ㉢ - 광혜원 설립 ④ ㉣ - 영국의 거문도 철수

문 16.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62년에는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었다. 이후 삼남 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곧이어 북쪽의 함흥 지역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민 봉기에 당황한 세도정권은 (가)을/를 설치하고 개혁에 착수하여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 < 보 기 > —

- ㉠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한 기구였다.
㉡ 전세, 공납, 군역의 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절목'을 공포하였다.

- ① ㉠ ② ㉠, ㉡ ③ ㉠, ㉢ ④ ㉡, ㉢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세기 중엽의 마지막 사회를 끝으로 결국 사림이 재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선조(宣祖) 시대의 개막이다. 선조 대의 사림정권은 성리학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로 인해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자리잡았다.

- ① 『소학』이 널리 보급되었다.
② 지방에서는 향약이 널리 시행되었다.
③ 가족 및 친족제도가 남자 중심, 장자 중심으로 점차 개편되었다.
④ 사림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제사 의식을 바꾸고 보급과 실천에 힘썼다.

문 18. 다음과 관련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인은 대한 독립 광복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에 이바지함은 물론 오인이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수적(讐敵) 일본을 온전 구축하고 국권을 광복하기까지 절대 불변하고 일심육력(一心戮力) 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서해 고했다.



- ① 서일을 단장으로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단체이다.
② 하와이에서 조직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조직이었다.
③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조직한 단체이다.
④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통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문 19.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 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나)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이요, 남북 통일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 세우는 데에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 가고 싶다.
 (라)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 이내에 선거를 시행함을 건의함.

- ① (가)-(나)-(라)-(다) ② (나)-(라)-(다)-(가)
 ③ (나)-(가)-(라)-(다) ④ (나)-(라)-(가)-(다)

문 20. 다음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이 이를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반역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현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대가 끝내 배신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 국민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나)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도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 일원임을 자랑한다.
 (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정부는...17일 야간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라)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 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뺨뺨스런 국민을 속이려 하였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① (나)-(가)-(라)-(다) ② (나)-(가)-(다)-(라)
 ③ (가)-(나)-(라)-(다) ④ (가)-(나)-(다)-(라)